

# “전북경제 살리기 통 큰 지원을”

김관영 도지사,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서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등 도정 주요 현안 해결에 힘 보태달라” 당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 김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8일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예산안 확보를 위한 여야 구분 없는 협치와 소통의 행보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김성원 예결위원장, 정운천 도당위원장 등 당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먼저 김 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여줬다”며 호남 주민들의 국민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전략에서도 유일하게 제외돼 도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변화의 열망이 가득한 우리 도민들께서 “전북경제 살리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달라”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명령을 내렸으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통 크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의 핵심산업 부흥을 위해 “농생명 산업 수도인 전라북도”에 △중장기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비행장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

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윤 대령의 새만금읍 기업인 넘쳐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안 반영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광역시 중심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결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다변화 속에서 전북만이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령령 지

속 설치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구축 공공의대 남원 설치 위한 국립공공보건대학법 등의 통과를 위한 힘이 되어주길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8월 말 정부안 편성 완료까지 기재부 및 국회 핵심인사를 만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주부터는 기재부 2차 심의가 들어가는 시기로 이후 한 달간 이 정부 예산안 반영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지휘부를 비롯한 도정 역량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 “정부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 균형발전 역행”

이명연 도의원, “인적·물적 지원 지방대학에 집중을”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18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인적·물적 지원 지방대학에 집중을”

장은 내팽겨 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명연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교육 정책은 지방대학의 몰락과 함께 지방 쇠락의 악순환만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중심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대 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최근 반도체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여러 장벽을 사용하려면 여러 지역으로 출장 실습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장비 구입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드는 상황에서 전북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 대학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여야, 민생경제특위 구성 합의...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완료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25~27일 대정부질문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 완료로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기존 계획대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8시45분 김창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

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의사일정과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또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총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

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 교통에너지환경법 ·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문양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 △기타 여야 간담회 합의안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 등이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이며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20일과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일에는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이 예정됐다. 대정부질문은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12분으로 제한되며 분야별로는 총 12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 /뉴스

## “도 자보센터 의혹 정치적 중립 보장해야”

이수진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8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의혹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및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어 자치단체장의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며 “최근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무대기 임당원사발견과 이에 따른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은 그간의 ‘공공연한 비밀’을 불편한 진실로 드러내는 계기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도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정치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록 이번 사

태가 전입 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기는 하나 센터의 혁신과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 도지사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법령이 정하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무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예외조항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센터장 임명에 대한 도의회 청문회라도 불사하겠다는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개최 잇따라

남원시의회,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5분 자유발언에서 윤지홍 의원, 오동환 의원, 강인식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평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남원시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생산적이고 알찬 임시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시민들의 다채로운 목소리와 요구를 정책에 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의회, 오늘 예결특위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8일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시작으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하반기 계획 청취는 20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에 이어

21일 농촌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2일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된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진안군의회도 진안군의 새로운 변화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 동반자의 길을 열어갔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의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청취안 상정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서는 문은영 의원이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무주 발전 실현을 주제로 대표발의 하고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1건을 상정했다. 22일까지는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무주군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한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은 무주를 위해 하

나가 되어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군민의 넉넉한 삶을 목표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제9대 무주군의회가 군민의 꿈을 잘 엮어갈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군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임실군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등 심사·처리

임실군의회(의장 이상재)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제9대 의회 개원 후 개최하는 첫 임시회인 이번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복지과 등을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로부터 군정 현황과 향후 군정 계획을 듣는다. 무엇보다 이번 제9대 의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초선의원이 5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거나 폭넓은 자료 요청 등으로 민방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가 군정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기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각 부서 업무 보고 시 집행부의 주요 추진 방향 등을 점검하고 건전한 군정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선진 지방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민주한행도 의원·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신영대 의원(군산)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난 1년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발의법안 통과성적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선정됐다.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 동안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활동하며 여러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이끌었음을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인구감소지역 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며 지방소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으로 지역의 2022년 국가 예산 확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촌살리기 핵심 사업인 ‘어촌뉴딜 300’을 비롯해 청년 및 융합사업을 위한 예술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아트컬처랩’ 등의 예산을 지켜내고 군산시 진반기 최고의 성과인 군산조선소 재기동을 위한 인력 예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은 8조

9,368억원인 군산시는 1조1,0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우수하게 평가받아 기쁘지만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기쁨보다 책임감이 앞선다”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지역과 민생 문제에 밀착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헌정대상은 26만 군산 시민을 대표해 수상한 것이라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은 하반기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저장, 물가 상승과 경제위기 등 세계가 당면한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또한, 야당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불공정·비윤리적 경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